모자의 애착유형에 따른 문제행동

The Patterns of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child related to the child's Problem Behaviors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
석 사 김 향 숙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이 정 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yang Univ.
Master : Hyang-suk Kim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Associate Prof. : Jung-sook Lee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attachment and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of 12 months infants, and to verify the child's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attachmen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and the patterns of infant's attachment. But, the latter infants had been fed, the more they showed secured attachment. Infants fostered under mothers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brother's family, husband, and having a satisfac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had more secured attachment. There was the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tterns of attachment and child's problem behaviors. Insecurely attached children showed more immature, insecure, antisocial behaviors and habit disorders.

As the results, th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infant's patterns of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childern's problem behaviors were influenced

by the patterns of attachment.

Ⅰ. 서 론

영유아기의 아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급속한 문명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혁으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육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모유 위주였던 전통적인 수유형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육의 주체도 본인이 전적으로 양육하는 경우보다 타인이 양육하는 경우와 본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양육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주부의 사회적 활동 영역이 넓어져서 종래의 가족, 친족 위주의 환경으로 부터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써 어머니 자신의 환경적 변인의 범주도 매우 넓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세가 되기까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유아기 동안 모자녀간에 형성되는 애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Ainsworth, Blehar, Lieberman(1977)은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애착의 형성과정에서 불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애착이란 영아기의 짧은 기간에 모-자녀 간에 형성되어 일생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은 유아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Bowlby,1969, 1982). Mary Ainsworth에 의하면 애착은 모자녀간의 복잡하고도, 상호작용성에 의해 형성되며, 아이의 욕구에 대하여 민감하게, 성심껏 대응하는 어머니의 양육하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강하고, 안정된 애착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1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형성된 애착은 유아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Liberman(1977)은 애착유형이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성의 발달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자율성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atas, Arend & Sroufe(1978)는 실험을 통하여 안정된 애착아가 불안정된 애착아에 비해 상징적인 상상 놀이를 더 잘하였으며, 문제 해결 상황과 과제에 더 호기심을 보이며, 열중하면서 어머니에게 더 순종적인 반면, 공격적인 행위는 적었다고 하였다. 또한 애착의 질은 아동의 행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된 애착을 가진 유아들은 낯선 사람에게 유순하고, 잘 응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Londerville & Main,1981).

Esterbrook과 Lamb(1979)도 모자녀 간의 애착의 질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안정된 애착아가 어머니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며, 또래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쉽게 접근하거나 먼저 말을 거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장난감 등을 나누어 갖고, 자주 미소를 짓는 등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행위를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이상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1세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형성되는 유아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과, 이 기간에 형성된 애착의 질이 유아의 성장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환경적 상황이 유아의 애착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이 학령기전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애착형성과 문제행동

아동의 정서적인 면이나 사회성 발달의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 되고 있는 것이 애착인데, 이는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성적 혹은 정서적인 결속을 의미한다(Danuta Bukatko, Marvin W. Daehler,

1992).

애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던 Bowlby(1958)는 애착이란 특정 대상에게 접근을 유지하고,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애착이란 의존성, 즉 아동들이 육체적 욕구만족을 위해 의존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이 일단 형성되면 성인기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유효순, 1984), 영아기때의 애착이 6세때의 애착을 예측가능케 한다는 Main과 Cassidy (1988)의 종단연구 등을 통해 애착의 지속성이 증명되고 있다(Cassidy, 1988; Kobak & Screery, 1988; Main et al.,1985; Sullivan,1980; Waters,1983).

Bowlby(1958,1969)는 어린 시절부터 병원이나 고아원 등에서 생활한 아동의 경우에는 퇴행 적인 사회적 상호관계, 지적발달의 미숙, 그리고 육체적 성장지연 (Skodak & Skeels,1949; Spitz,1946a)등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 주며, 이의 원인은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긴밀한 정서적인 결속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Ainsworth와 Bates(1985)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애착은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성(Interplay)에 의해 형성되며, 아이의 욕구에 대하여 민감하게, 성심껏 대응하는 어머니의 양육하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보다는 훨씬 강한 애착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Liberman(1977)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성장 후 또래와의 관계를 맺는 사회성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안정된 애착아는 놀이기구를 다른 아이들과 나누어 갖거나 다른 아이와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시작하려는 행동과 같은 양방향성인 상호작용을 많이 보이며, 울거나 신체적, 언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은 더 적게 보였다고 하였다.

Paster(1981)도 2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접촉한 빈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안정된 애착아의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고, 적절한 시기에 반응함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조화있는 균형을 보여 줌으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다는 Liberman(1977)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Ainsworth, Blehar 및 Liberman(1977)은 26쌍의 어머니와 유아들을 대상으로 생후 6~15주까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이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놀이 유형(face-to-face pattern)을 관찰하고, 1세가 되었을 때 낯선 실험실 상황하에서 애착수준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안정된 애착아의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더 일관성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놀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반면에 불안정한 애착그룹에 속한 유아의 어머니들은 완고하고, 유아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답하지 않으며, 부모의 방식을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양육자로써 긍정적이지 않았다(Danuta Bukatko, Marvin W.Daehler, 1992).

따라서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애착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모자녀간의 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결여된 경우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착에 대한 국내의 애착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개 낯가림 혹은 격리불안을 애착의 지표로 보고, 이를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80년대 중반이후의 연구들은 만 6개월에서 만 24개월 사이의 유아 250명을 대상으로 대물애착에 대해 연구하면서 대물애착과 관련지어 낯가림과 격리불안에 대해 알아 본 도현심(1985)의 질문지법 연구가 있고, 실험연구로는 65명의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Ainsworth의 낯선 상황을 사용하여 애착을 측정해서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를 알아 본 유효순(1985)의 연구가 있다.

김종순(1989)은 만 10개월~18개월의 영아와 그 어머니 62쌍을 대상으로 영아의 애착과 가정환경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때 영아의 애착측정을 위해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사용하였다. 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과 달리 이영환(1992, 1993)은 영아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애착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역시 Ainsworth의 낯선 상황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들 외에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변형하여 3장면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관찰한 송지연

(1988)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생후 1세 때까지 형성된 애착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서 성인이 된 이후의 사회적 적응능력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애착에 관련된 변인

애착에 관한 연구들과 더불어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 영아를 대상으로 12개월과 18개월에 이들의 애착관계를 측정한 Egeland와 Farber(1984)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하게 애착한 영아의 어머니는 불안정 애착 영아의 어머니에 비해 수유와 놀이상황에서 영아에게 일관되게 반응하며 보다 협동적이고, 민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Belsky. Rovine, 및 Tayor(1984)는 영아가 1, 3, 9개월일 때 가정에서 관찰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애착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안정애착아는 상호호혜적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자극이 적절하였는데, 이는 보살핌을 반영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항애착아는 안정애착아에 비해 덜 반응적인 보살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숙(1981)은 서울지역의 12~13개월의 유아와 어머니 85쌍을 대상으로 유아의 낯가림 및 격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안아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격리불안의 발생율이 더 높았다. 고경애(1984)는 낯가림, 격리불안, 대물애착을 애착의 지표로 보고, 이들에 관한 문항에서 얻어진 응답을 토대로 연구대상 유아를 안정 대 불안정 애착아로 구분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가 항상 안아준 유아보다 울 때만 안아준 유아가 더 안정된 애착을 보였으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많을수록 안정하게 애착되는 경향을 보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에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하며, 시기 적절하게 욕구를 해결해 주느냐가 자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Abian(1990)은 생후 첫 3년동안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행동발달과 부모-자녀관계의 발달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족상황, 생활사 스트레스 등 다양한 면들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rnic, Greenberg 및 Slough(1986)는 배우자에 만족하며,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피는 행동이 남편에게서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 것은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부드러운 관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

Spieker와 Bensley(1994)는 197쌍의 십대 어머니와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머니가 조모로부터 높은 지원을 받고 함께 생활할 경우안정된 애착아가 더 많았다. 하지만 조모로부터 지원이 낮은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 영아와 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어머니가 처한 환경적 상황은 모자의 애착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애착형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환경적 상황이 애착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애착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밝히는데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3.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정상적인 유아들의 행동과는 달리 다소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으로 부터의 자극에 의해 정상적인 유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안창일, 1983)

송성자(1985)에 따르면 유아는 가정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 독단적인 전통적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

하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경우 공경심과 조심성은 많으나 열등감과 두려움 및 불안감 등을 많이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원영(1983)은 아동의 문제행동은 비행, 거짓말, 싸움, 반항 등과 같은 행동적인 것과 열등감, 공포,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와 같은 아동의 행동은 가정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와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에 의해 야기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아동의 많은 문제행동은 정서적 부적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용운(1978)은 문제행동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학습상의 문제행동으로서 학습 부진과 교과에 대한 흥미의 상실, 그리고 모범적이지 못한 학습태도등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행동상의 문제행동으로서 비행, 거짓말, 싸움, 반항, 폭언 등과 같이 사회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정서적 부적응 행동으로서 열등감, 공포, 불안, 질투, 백일몽 등과 같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원만한 사회관계를 방해하는 행동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관계에서 구성원간의 부정적인 태도나 불일치 된 태도와 같은 갈등 상태는 아동의 행동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정숙, 김희경(1990)은 부모의 육아태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모가 아이를 무시하고, 엄격하며 아이와의 접촉을 피하는 등의 거부적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은 공격, 비행, 애정결핍증 등의 반응을 보이며, 둘째, 부모가 형제편애의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은 질투심이 강해지며, 타인과 경쟁싸움이 심해지고 가출 등의 반응을 보인다. 셋째,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 등의 방임적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은 자기중심적이 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부도덕한 행위를 많이하며, 넷째, 부모의 의도를 강요하고, 아이들에 대해 곧바로 반대하거나 결점을 찾아내 비난·거부·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완전욕에 대해 아동은 욕구불만, 신경질적, 강박, 신경성 증후 야뇨 등의 반응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과잉보호적 태도에 대해 아동은 정서적 미숙, 자립심 부족, 신경성 증후의 증가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 부모의 성격 및 태도,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 등의 불안정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들의 고찰에서 살펴볼 때, 1세 때까지 형성된 애착,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환경적 상황이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애착과 관련된 변인과 애착유형,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모자녀의 애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애착 유형과 유아의 문제 행동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2. 애착유형과 1세 이전까지의 어머니의 양육 행동·환경적 변인은 관계가 있는가?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애착유형

Ainsworth (1978)의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에서의 애착 유형별 행동 특성과 Main과 Cassidy(1988)에 의한 1세 이후의 애착행동 특성을 기초로 하여 애착의 안정 및 불안정성을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가지 상황에 대하여 유아들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안정 및 불안정된 애착아로 구분하였으며,

Chess와 Thomas(1982)의 유아성격분류를 기준으로 성격특성을 애착유형과 연관지어 분류하였는데, 유아의 성격이 명랑·유순하고 예민하지 않은 경우를 안정된 애착아로, 그 반대의 성격을 가진 유아를 불안정된 애착아로 분류하였다. 〈표 1〉은 애착행동 특성별 애착유형 분류표이다.

(3) 문제행동

문제행동 분류는 C.E. Charles & Howard (1994ed.)의 저서에서 언급된 방식을 기초로 하여 미숙행동, 불안정한 행동, 무질서한 습관, 또래문제, 반사회적인 행위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항목을 세분하여 다시, 집중력부족·자기 중심적 행위·지나친 의존성

〈표 1〉 애착행동 특성 분류표

상황		애착유형별 행동특성 분류	
		안정된 애착아	불안정된 애착아
어머니와 의 분리시		아이와 함께 있다가 방 밖으로 나가면 울면서 따라 붙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정도가 심하지 않음	아이와 함께 있다가 방 밖으로 나가면 울면서 따라 붙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정도가 심함
낯선 곳에서의 아이의 반응		처음에 낯을 가리나 시간이 지나면 낯선 사람과도 잘 어울리며 불안해 하지도 않음	불안해 하며, 엄마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고,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울어버림
어머니와의 재회시		상당히 반가와 하고, 잠시 매달리며, 안아주고 달래면 곧 안정된 상태를 유지함.	화를 몹시내고 신경질적이 되어 화를 풀지 않으며, 떼어 놓으면 울고 매달림
낯선 손님방문시		낯선 사람이라도 쉽게 접근하며, 쉽게 친숙해짐	손님을 무서워 하며, 아버지나 엄마에게만 붙어 있음
유아성격	명랑한 정도	명랑함	명랑하지 않음
	유순한 정도	유순함	유순하지 않음
	예민한 정도	예민하지 않음	예민함

(2) 애착에 관련된 변인들

본 연구에서는 모자의 애착은 1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변인은 1세 이전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환경적 상황으로 보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육체적 접촉정도와 수유형태, 모자녀간의 상호관계로 분류하였고, 어머니의 환경적 변인은 시집식구와의 관계, 어머니의 상황만족도, 남편과의 관계 남편과 다툰 후 아이를 대하는 태도로 나누었다.

을 미숙행동으로 분류하였고, 공포증·열등감·과민반응·수줍음을 불안정한 행동으로 보았으며, 손가락빨고 물어뜯기·오줌싸게·불면증·거식증을 무질서한 습관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공격성·비사회성을 또래문제로, 불복종·불끈하는 기질·도벽·거짓말·부정직성·파괴성을 반사회적 행위로 각각 분류하였다. 〈표 2〉는 문제행동에 대한 분류표이다.

〈표 2〉 문제행동 분류표

분 류	문제행동분류	설문항목	문제행동
미숙행동 (Immature Bahaviors)	· 집중력 부족	· 문8,15	· 주의 집중을 못하고 산만함. · 일을 시작해도 끝맺음을 못함.
	· 자기 중심적 행위	· 문3, 4, 27	· 자기 물건을 잘 나누어 주지 않음 · 다른 아이의 놀이도구나 물건을 빼앗음 · 자기에게 잘못 대해주면 잘 울어버림
	· 지나친 의존성	· 문30	· 낯선 곳에서 떨어지지 않으려함
불안정한 행동 (Insecure Behaviors)	· 공포증	· 문16, 31, 36	· 무서움을 잘 탐. · 낯선 곳에서 잘 어울리지 않음 · 얕은 잠과 작은 소리에 금방 깸
	· 열등감	· 문7	· "나도 할수 있어."등의 말을 하지 않음
	· 과민반응	· 문19, 22	· 마음대로 안되면 화를 내거나 뒹굼 · 감기를 자주 앓음
	· 수줍음	· 문12, 32	· 수줍음이 많음 · 낯선 사람회피함
무질서한 습관 (Habit Disorders)	· 손가락을 빨고, 손톱을 물어뜯음	· 문24	· 손가락 빨고, 손톱을 자주 물어 뜯음
	· 오줌싸게	· 문21	· 밤에 오줌을 잘 쌈
	· 불면증	· 문35	· 불면증으로 깊은 잠을 못잠
	· 거식증	· 문23	· 밥 먹기를 거부함
또래문제 (Peer Problems)	· 공격성	· 문14, 28	· 싸움을 자주 함 · 친구를 먼저 때려서 울리곤 함
	· 비사회성	· 문1, 2, 9, 20, 26	·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며, 집안에서만 놀기를 좋아함
반사회적인 행위 (Antisocial Behaviors)	· 불복종	· 문17, 37	· 말을 잘 듣지 않고, 불평이 많음 · 엄마의 지시에 반항함
	· 불끈하는 기질	· 문18	· 쉽게 흥분하고, 참지 못함
	· 도벽	· 문25	·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
	· 거짓말	· 문13	· 거짓말을 자주함
	· 부정직성	· 문10	· 잘못을 부정하고, 핑계를 잘댐
	· 파괴성	· 문29	· 놀다 기분이 상하면 놀이 도구를 던짐

출처 : C.E. Charles &howard, 1994ed「How to help Children with the Common Problems」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12개월이후(1세 이후)부터 학령기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유아원 및 유치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아의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항목		응답자수(%)	일반항목		응답자수(%)
유아성별	남	157(52)	연평균 가구 소득별	2,000미만	122(40)
	여	146(48)			
어머니 연령분포	24~30세	81(27)		2,000~3,000	124(41)
	31~34세	149(49)			
	35~48세	73(24)		3,000만이상	57(19)
학력별	중졸	6(2)			
	고졸	151(50)	아이와 같이 있은 평균시간	3시간미만	60(20)
	대졸	136(45)		3~5시간	124(41)
	대학원졸	10(3)		6시간이상	119(39)
직장유무	취업모	124(41)	양육주체	본인양육	182(60)
	비취업모	179(59)			
수유형태	모유	41(14)		본인+타인	73(24)
	모유+우유	140(46)		타인양육	48(16)
	우유만	122(40)			

〈표 4〉 유아의 연령분포도

연령구간	유아수(명)	구성비(%)
2세이하	24	8
3세이하	53	17
4세이하	61	20
5세아하	52	17
6세이하	75	25
7세이하	38	13
계	303	100

2) 조사도구

국내의 선행연구(고경애, 1984; 송지연, 1988; 우대식, 1992)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조사도구를 작성하였다.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고 설문 문항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한 설문지는 1세 이전의 자녀양육태도를 묻는 문항과 애착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5점척도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을 묻는 문항,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예비조사는 1세 이상의 유아부터 학령기 전까지의 연령(7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 중에서 19명을 선정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는 1995년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약 1개월 가량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유아원 및 유치원의 보모, 유치원 교사들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부하여 비회수 및 불성실 응답설문을 제외한 303부(회수율: 87%)만을 본 연구의 기본자료로 사용하였다.

표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R5.0.2를 사용하였으며, 그래프 및 보조통계를 위한 도구로써

Microsoft Excel 5.0을 이용하였다. 1세까지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와 애착유형간의 관계는 χ^2분석을 이용하였고, 애착유형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애착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으로 애착유형의 경우는 〈표 1〉을 기준으로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아를 구분하였으며, 문제행동의 경우는 5점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그렇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애착유형의 경우는 고경애(1984)의 연구방법을 참조하여 안정된 애착 행동 특성을 보이는 문항에 응답한 경우 +1점으로, 불안정 애착 행동을 보이는 문항에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점수를 부여 하여 각 문항의 합이 '+'인 경우에는 안정된 애착아로, '-'인 경우에는 불안정된 애착아로 분류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애착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1) 애착유형과 전체 문제행동간의 관계

애착유형과 전체 문제행동간의 관계는 〈표 5〉와 같다. 애착유형과 전체 문제행동간에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차가 있었다($t=-3.95$, $p<.001$). 따라서 전체적으로 불안정된 애착아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

애착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이는 문제행동으로는 유의수준 0.1%에서 정서적 불안정 행동($t=-4.53$, $p<.001$), 무질서한 습관($t=-3.32$, $p<.001$),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t=-4.08$, $p<.001$)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수준 1%에서 미숙행동과도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t=-2.73$, $p<.01$). 즉 불안정된 애착아일 수록 정서적 불안정 행동, 무질서한 습관, 반사

〈표 5〉 애착유형과 전체 문제행동간의 관계

애착유형	전체		미숙행동		정서적 불안정행동		무질서 습관		또래문제		반사회 행위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안정된 애착	1.56	.51	1.87	.65	1.71	.55	1.62	.59	1.58	.56	1.77	.56
불안정 애착	1.92	.60	2.16	.79	2.12	.65	1.94	.76	1.76	.62	2.14	.67
t	-3.95***		-2.73**		-4.53***		-3.32***		-1.91		-4.08***	

*p < 5.05 **p < 0.01 ***p < 0.001

〈표 6〉 애착유형과 미숙행동간의 관계

애착유형	미숙행동					
	집중력 부족		자기 중심적 행위		지나친 의존성	
	M	SD	M	SD	M	SD
안정된 애착	2.11	.84	2.08	.78	2.15	.95
불안정 애착	2.34	.96	2.44	.76	2.96	1.21
t	-1.55		-2.97**		-4.42***	

*p < 0.05 **p < 0.01 ***p < 0.001

회적 행위, 그리고 미숙행동을 많이 보였다. 그러나 또래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유형이 또래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애착유형과 미숙행동(Immature Behaviors)간의 관계

애착유형과 미숙행동간에 관계는 〈표 6〉과 같다. 애착유형과 통계적 유의차를 보인 문제행동은 지나친 의존성($t=-4.42$, $p<.001$)과 자기 중심적 행위($t=-2.97$, $p<.01$)와 각각 유의수준 0.1%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즉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일 수록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행동이나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더 많이 보였다.

(3) 애착유형과 정서적 불안정 행동(Insecure Behaviors)간의 관계

애착 유형과 정서적 불안정 행동간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애착유형과 정서적 불안정 행동간의 관계는 공포증($t=-4.65$, $p<.001$)과 수줍음 타는 행동($t=-5.90$, $p<.001$)이 0.1% 유의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으며, 과민반응은($t=-3.03$, $p<.01$) 유의수준 1%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즉 불안정된 애착아일 수록 공포증이나 수줍음, 그리고 과민반응을 많이 보였다. 이는 윤태림(1979)과 송성자(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착유형과 열등감 간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표 7〉 애착유형과 정서적 불안정 행동간의 관계

애착유형	정서적 불안정 행동							
	공포증		열등감		과민반응		수줍음	
	M	SD	N	SD	M	SD	M	SD
안정된 애착	1.87	.69	1.66	.77	2.44	.82	2.20	.82
불안정 애착	2.38	.72	1.84	1.03	2.84	.91	2.96	.83
t	-4.65***		-1.16		-3.03**		-5.90***	

*p 〈 0.05 **p 〈 0.01 ***p 〈 0.001

(4) 애착유형과 무질서한 습관(Habit Disorders)간의 관계

애착유형과 무질서한 습관간의 관계는 〈표 8〉과 같다. 애착유형과 불면증 간에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t=-2.94$, $p<.01$). 즉 불안정된 애착아일수록 불면증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

그 밖에 손가락을 빨고, 손톱을 물어 뜯는 행동, 오줌을 자주 싸거나 거식증 등과 애착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었다.

〈표 8〉 애착유형과 무질서한 습관간의 관계

애착유형	무질서한 습관							
	손 빨고, 손톱뜯음		오줌싸게		불면증		거식증	
	M	SD	M	SD	M	SD	M	SD
안정된 애착	1.83	1.07	1.77	1.01	1.67	.81	2.58	1.09
불안정 애착	2.06	1.01	2.02	1.05	2.18	1.15	2.76	1.13
t	-1.35		-1.55		-2.94**		-1.05	

**p 〈 0.01

(5) 애착유형과 또래문제(Peer Problems)와의 관계

애착유형과 또래문제와의 관계는 〈표 9〉와 같다. 애착유형과 비사회성(사회성 결핍)간에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t=-2.35$, $p<.05$). 즉 불안정한 애착아 일수록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의 사회성 결핍행동을 보였다. 이는 Bowlby(195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Lieberman(1977)의 3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안정된 애착아의 경우 불안정된 애착아보다 다른 아동들간의 관계에서 더욱 사교적이다(Arend, Gove & Sroufe,1979; Londerville &

〈표 9〉 애착유형과 또래문제 간의 관계

애착유형	또래문제			
	공격성		비사회성	
	M	SD	M	SD
안정된 애착	1.98	.80	1.66	.65
불안정 애착	2.18	.96	1.90	.67
t	-1.35		-2.35*	

*p 〈 0.05

Main,1981; Pastor,1981; Waters,Wippman & Sroufe, 1979)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공격성과 애착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

(6) 애착유형과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s) 간의 관계

애착유형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는 〈표 10〉과 같다.

애착유형과는 불복종(t−4.27, p〈.001)과 불끈하는 기질(t−3.33, p〈.001)간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거짓말(t−2.44, p〈.05), 부정직성(t=−2.00, p〈.05), 그리고 파괴성(t−2.57, p〈.05)과도 유의수준 5%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즉 불안정된 애착아 일수록 어른 말을 잘 듣지 않고, 불평이 많으며, 엄마의 지시에 반항하는 등의 불복종 행동과 불끈하는 기질을 많이 보였다. 이는 Landerville & Main(1981)의 연구에 의한 21개월된 유아 중 약 50%는 엄마의 말에 순종적 이었으며, 이들 중 생후 12개월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보행기 유아들은 대체로 생후 12개월경 엄마와 불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 이었으며, 엄마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 밖에 거짓말, 부정직성, 그리고 파괴성 등의 문제행동에 있어서도 불안정 애착아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따라서 불안정된 애착아 일수록 반사회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Esterbrook과 Lamb(197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벽과 애착유형과는 유의차가 없었다.

2. 애착유형과 애착 관련변인과의 관계

(1) 애착유형과 육체적 접촉 정도

애착유형과 육체적 접촉정도와의 관계는 〈표 11〉과 같다. 어머니와 유아 간에 육체적 접촉정도와 애착유형과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그러나 안아준 정도에 있어서 자주 안아준 경우가 안아주지 않은 경우의 유아보다는 안정애착을 다소 많이 보였으며, 사랑의 표현을 많이 받은 유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안정된 애착을 보였다.

(2) 애착유형과 수유형태

애착유형과 수유형태와의 관계는 〈표 12〉와 같다.

〈표 10〉 애착유형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애착유형	반사회적 행동											
	불복종		불끈하는 기질		도벽		거짓말		부정직성		파괴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안정된 애착	2.31	.73	2.47	.94	1.62	.80	1.91	.74	2.54	.98	2.12	.97
불안정 애착	2.80	.75	2.96	.96	1.86	.96	2.20	.75	2.86	1.10	2.52	1.11
t	-4.27***		-3.33***		-1.86		-2.44*		-2.00*		-2.57*	

*p 〈 0.05 **p 〈 0.01 ***p 〈 0.001

〈표 11〉 애착유형과 육체적 접촉정도의 관계

(단위 : 명, (%))

양육행동			안정된 애착	불안정 애착	계	x^2
육체적 접촉 정도	안아준 정도	자주 안아줌	167(66)	30(60)	197(65)	.77
		울거나 보챌때	86(34)	20(40)	106(35)	
	계		253(84)	50(16)	303(100)	
	사랑의 표시정도	아주 많이 가끔씩	136(54)	26(52)	162(53)73(24)	2.68
		보통	57(23)	16(32)	68(23)	
			60(24)	8(16)		
	계		253(84)	50(16)	303(100)	

〈표 12〉 수유 형태와 애착유형간의 관계

(단위 : 명, (%))

양육행동			안정된 애착	불안정 애착	계	x^2
수유형태	수유종류	무유만 먹임	31(12)	10(20	41(14)	2.76
		무유+우유	121(48)	19(38)	140(46)	
		우유만 먹임	101(40)	21(42)	122(40)	
	계		253(84)	50(16)	303(100)	
	수유간격	정해진 시간	85(34)	16(32)	101(33)	.04
		원할때 불규칙	168(66)	34(68)	202(67)	
	계		253(84)	50(16)	303(100)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	8개월 이하	20(8)	3(6)	23(8)	5.08
		9~12개월	103(41)	29(58)	132(43)	
		13개월 이상	130(51)	18(36)	148(49)	
	계		253(84)	50(16)	303(100)	

수유형태가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의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수유종류에 있어서 혼합영양아일수록 더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 밖에 수유간격에 있어서도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가 늦을 수록(χ^2 =5.08, p〈.01)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애착유형과 모자녀간의 상호관계

애착유형과 모자녀간의 상호관계와의 관계는 〈표 13〉과 같다. 애착형성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관계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아이와 같이 놀아준 시간이 길수록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높았으며, 어머니가 양육한 유아가 안정된 애착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 줄 수록 더 안정된 애착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으며, 보챌 때 아이를 대해 준 태도에 있어서는 상냥하고, 부드럽게 대해준 유아일 수록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많았다.

(4) 애착유형과 어머니의 환경적 변인

애착유형과 어머니의 환경적 변인의 관계는 〈표

〈표 13〉 모자녀간의 상호관계와 애착유형간의 관계

(단위 : 명, (%))

양육행동			안정된 애착	불안정 애착	계	x^2
상호관계	하루평균 같이 놀아준 시간	6시간 이상	104(41)	15(30)	119(39)	3.20
		3~5시간	98(39)	25(52)	124(41)	
		3시간 미만	51(20)	9(18)	60(20)	
	계		253(84)	50(16)	303(100)	
	양육주체	본인 양육	152(60)	30(60)	182(60)	.28
		본인+타인	62(25)	11(22)	73(24)	
		타인	39915)	9(18)	48(16)	
	계		253(84)	50(16)	303(100)	
	원하는 것을 들어준 정도	잘 들어줌	225(89)	42(84)	267(88)	.99
		보통	28(11)	8(16)	36(12)	
	계		253984)	50(16)	303(100)	
	보챌때 대한 태도	상냥/부드럽게	164965)	31(62)	195(65)	.89
		보통	77(30)	15(30)	92(30)	
		야단침	1295)	4(8)	16(5)	
	계		253984)	50(16)	303(100)	

〈표 14〉 어머니의 환경적 요인과 애착유형간의 관계

(단위 : 명, (%))

어머니의 환경적 변인		안정된 애착	불안정 애착	계	x^2
시집식구와 관계정도	좋은편	210(83)	30(60)	249(79)	14.00***
	그저 그랬음	37915)	16(32)	53(18)	
	나쁜편	6(2)	4(8)	10(3)	
계		253(84)	50(16)	303(100)	
어머니의 상황만족도	만족함	176(70)	26(52)	202)67)	6.98*
	그저 그랬음	50(20)	13(26)	63(21)	
	불만족	27(10)	11(22)	38(12)	
계		253(84)	50(16)	303(100)	
남편과의 일상적 관계	좋은편	202(80)	33(66)	235(78)	17.66***
	그저 그랬음	48(19)	11(22)	59(19)	
	나쁜편	3(1)	6(12)	9(3)	
계		253984)	50(16)	303(100)	
남편과 다툰경우 아이를 대한 태도	관계없이 상냥	190(75)	32(64)	222973)	2.62
	화를 내며 야단	63(25)	18(36)	81(27)	
계		253(84)	50(16)	303(100)	

*p < 0.05 ***p < 0.001

14>와 같다. 유의수준 0.1%에서 시집식구와의 관계정도($p < .001$)와 남편간의 관계($p < .001$), 그리고 유의수준 5%에서 상황만족도($p < .05$)와 애착형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였다.

시집식구와의 관계가 좋을 수록($\chi^2 = 14.00$, $p < .001$), 남편과의 관계가 좋을 수록($\chi^2 = 17.66$, $p < .001$) 안정된 애착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만족할 수록($\chi^2 = 6.98$, $p < .05$) 유아가 더 안정된 애착을 보였다. 이는 유아의 주변 가정환경이나 어머니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Vaugen et al.(197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편과 다툰 경우 아이를 대한 태도와 애착형성과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다툼과 관계없이 상냥하게 대해준 유아가 안정된 애착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사회구조의 변화로 기혼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의 참여증가와 여성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어머니가 처한 상황은 자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요인들이 자녀의 성장과정에 있어 문제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환경적 변인이 자녀들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애착유형이 성장과정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원인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과제로 애착유형과 1세 이전의 어머니의 양육행동·환경적 상황 간의 관계와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이 유아의 성장과정에서(학령기 전까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의 유아 또는 유치원 자녀를 둔 주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총303부였다. 수집된 자료를 신뢰성 분석, χ^2검증, t-검증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애착유형과 전체 문제행동간에는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불안정된 애착아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애착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이는 문제행동으로는 미숙행동, 정서적 불안정 행동, 무질서한 습관,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로 나타났으나, 애착유형이 또래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숙행동(Immature Behaviors)에서 유의차를 보인 문제행동은 지나친 의존성과 자기 중심적행위였고, 정서적 불안정 행동(Insecure Behaviors)으로는 공포증과 수줍음 타는 행동, 그리고 과민반응이었다. 무질서한 습관에서는 불면증 등 무질서한 행동이 많았고, 또래문제에서는 불안정 애착아일수록 사회성 결핍을 많이 보였다.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불복종, 불끈하는 기질, 거짓말, 부정직성, 파괴성을 보여 불안정된 애착아일수록 반사회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둘째, 1세 이전까지의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와 애착유형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환경적 변인인 시집식구와의 관계정도와 남편과의 관계, 어머니의 상황만족도와 애착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였는데 시집식구와의 관계가 좋을 수록, 남편과의 관계가 좋을 수록 안정된 애착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만족할 수록 유아가 더 안정된 애착을 보였다. 남편과 다툰 경우 아이를 대한 태도와 애착형성과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다툼과 관계없이 상냥하게 대해준 유아가 안정된 애착을 더 많이 보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첫째, 유아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부터 1세가 되기까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우 중요하며, 자녀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표시를 많이 해주고, 상호관계를 많이 가지며, 어머니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유아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에 도움이 되며, 둘째, 불안정된 애착아일수록 전체적으로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영아기부터 1세가 될때까지 자녀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어머니나 아이들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설문 응답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고 관대하게 평가함으로써 다소 객관성이 결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둘째,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에 있어 애착유형 문항의 신뢰도는 α =.58, 문제행동의 신뢰도는 α =.86으로 애착유형 문항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는 이는 애착특성을 1세 이전의 상황을 기억해서 답하는 형식의 문항들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진 조사도구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도구의 표준화와 관련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Ainsworth의 낯선 상황 구조를 기초로 하여 애착 유형별 행동특성을 분류하였으나 안정, 불안정된 애착아의 행동 특성이 보다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아 행동 특성 분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애착 유형별 유아의 행동 특성이 보다 자세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1세 이후의 유아의 성장과정에서도 애착유형의 변화 여부나 행동특성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아동들이 학령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장과정에서 이들 변인이 문제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고경애(1983).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종순(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영속성 보존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희경, 이정숙(1990). 믄제아 임상심리학. 서울: 교문사
4) 도현심(1985). 어머니의 수유방식 및 자녀접촉 정도가 대물애착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박은숙(1983). 한국 유아의 애착발달 현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2). 117-127
6)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송성자(1985). 한국의 가족치료 연구.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출판부.
8) 송지연(198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애착 및 물체영속성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우대식(199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이영환(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Manual.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14) Ainsworth, M.D.S., Blehar, M.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15) Belsky, J., Rovine, M. & Taylor, D. (1984).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5. 718-128.
16) Blehar, M.C., Lieberman, A.F., & Ainsworth, M. D.S.(1977), Early face to face interaction and its relation to late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48, 182~194.
17)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18)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19)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20) Charles Z. Schaefer, Ph.D. & Howard L. Millman, Ph.D.(1994ed), How to help children with common problems, Jason Aronson Inc.

21) Crnic, K.A., Greenberg, M.T. & Slough, N.M. (1986). Early str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mothers' and hige risk infant' functioning in late infanc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7, 19-33.

22) Danuta Bukatko, Marvin W. Daehler(1992), Child Development-A Tropical, Houghton Mifflin Co., pp.425 -443, 19

23) Egeland, B. & Farber, E. A.(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24) Esterbrooks, M.E. & Lamb, M.E.(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nfant competence in initial encounter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50, 380-387.

25) Kobak, R.R. &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26) Lieberman, A.(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27) Londerville, S., & Main, M.(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s in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7, 289-299.

28) Main, M., & Cassidy, J.(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6: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 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29) Matas, L., Arend, R.A., & Sroufe, L.A.(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30) Paster, D.L.(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sociabilit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6-325.

31) Speiker,S.J. & Bensley, L.(1994). Roles of living arrangement and grandmother social support in adolescent mothering and infant attach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0, 102-111.

32) Vaughn, B.E., Egeland, B., Sroufe, L.A., & Waters, E.(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twelve and eighteen months: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1-975.